

되어야 하는 바 立地選定은 農水産流通團地 候補地別 經濟的 및 非經濟的 比較 分析을 통하여 人口, 生活水準, 交通, 住宅 등의 將來 豫想 및 計劃을 감안한 最適地를 選定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農水産物 流通圈域을 크게 4個 圈域으로 나누어 보면 可樂·江南市場圈, 永登浦 및 西南部市場圈 및 현재 江西區 外鉢山洞 3萬 6,000坪 敷地에 農水産物都賣市場 建設을 서울시가 推進하고 있고, 淸涼里 東北部市場圈은 農林水産部에서 九里市에 建設을 推進 중인 바 서울 全體 流通市場圈域의 균형 있는 發展을 위하여 西北圈 恩平, 麻浦, 西大門, 龍山, 鍾路一部 58萬 8,000家口의 人口 180萬名의 農水産物都賣市場 建設이 要請되는 바입니다.

특히 서울特別市 西北地域은 人口增加와 主要 道路網의 變化, 그리고 農水産物 分配體系上的 效率性 및 農水産物 소비패턴 變化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隣近 地域住民의 福祉와 便益增進을 위하여 農水産物都賣市場 建設은 絶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地方化時代를 맞이하여 서울시 財政自立도와 隣接地域의 稅收增大 效果를 가져올 것이며, 江南地域에 비해 상대적으로 落後된 江北地域의 商圈을 보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特別市 西北圈地域의 交通, 文化, 教育뿐만이 아니라 統一을 대비한 交通 및 物流流通 요충지를 살펴보면 水色 驛勢圈地域이 生活圈에 西北地域 恩平區, 西大門區, 麻浦, 鍾路, 龍山 一部地域의 最適 交通要地이면서 一山, 高陽市 등 新都市 住民의 農水産物의 進入路로써 出荷 比重도 가장 높은 이 地域으로 都賣市場의 必要 施設, 適正收支, 施設規模, 流通規模, 流通人口 등 公營 都賣市場 開場의 最適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一帶에 南北統一時代를 앞두고 統一路가 貫通하는 地域으로 南北間의 貿易交流 增大와 함께 長期的인 都市計劃에 의한 地域 發展의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水色 驛勢圈 農水産物都賣市場 建設은 鐵道敷地 約 35萬坪 中 일 부로써 土地利用率을 높이고 建設에 따른 附帶

效果와 驛勢圈의 開發과 함께 鐵道 利用度를 자연스럽게 上昇시키는 效果를 가져올 것이며, 首都圈 交通分散政策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交通의 便利성과 地域住民 利用 便益 增進을 위하여 水色驛 附近 鐵道用地를 鐵道廳長의 同意를 얻어 覆蓋할 것과 政府 關聯機關의 협조를 얻어 農水産物都賣市場을 建設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特別市 地域 財政自立도를 높이고 西北圈地域 住民의 쾌적한 生活과 함께 都賣市場 利用에 따른 交通滯症 解決, 人口 分散政策 일환으로도 이 地域 農水産物都賣市場 建設이 絶대 필요하므로 中央政府와 서울特別市, 다음 事項을 建議하는 것을 提案하면서 배포해 드린 油印物과 같이 滿場一致로 通過해 줄 것을 바라면서, 理解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西大門, 恩平, 麻浦 이 삼각지역에 鐵道敷地를 覆蓋함으로써 鐵道廳에서 國鐵의 輸送比率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것은 反對할 理由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農水産物都賣市場이 우리가 敷地가 없다고 해서 여태까지 西北圈에는 施行도 못 했습니다만, 만약에 高陽市로 敷地가 選定해서 나간다고 하면 우리 恩平區나 西大門, 麻浦는 經濟權 問題나 自立度 問題에도 弱勢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 모든 經濟權은 京畿道 高陽市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 地點을 選定해서 費用도 節減이 되고, 敷地 買入費도 없고 이런 問題가 있으므로 여러 議員님께서는 심층 있게 檢討하셔서 滿場一致로 通過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敏國 朴仁浩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朴仁浩議員님께서 퇴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贊穆 專門委員 李贊穆입니다.

.....
(報告)
1994년 11월 8일 박인호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북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이 1994년 11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동 건의안의 주문은 농수산물 수급 및 유통상의 효율성 증진과 서울특별시 서북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 철도청장,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서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건의하는 것임.

2. 제안이유

○서울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수도권 지역의 인구, 교통, 주택, 생활수준 등의 장애요인 및 계획을 감안한 최적지역에 선정해야 하며,

○서울시 농수산물 유통권역별로 분류하면 가락·강남권, 영등포서남권, 청량리동북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서울시 전체 유통시장 권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이 요청되고 있고,

○향후 통일에 대비하고 일산, 고양시 등 신도시의 교통 및 물류요충지인 수색역세권 지역은 경의선철도와 연계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경기, 강원, 충남 등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집하가 용이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며,

○서북권 도매시장 선정부지(수색역세권)는 일산 신도시와 경기서북부 지역을 배후에 두고 있으며, 인근 5개 구(용산, 마포, 종로, 서대문, 은평) 지역의 유통인구, 유통량을 감안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발전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최적지인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3. 건의사항 주요골자

○서울시장은 수색역세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건의한다.

○철도청장은 역세권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용지로 수색역 토지복개에 동의할 것을 건의한다.

○서울시장은 철도청장과 철도용지 활용을, 농림수산부장관과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한다.

○농림수산부장관은 서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건의한다.

4. 검토의견

○농수산물의 수급, 유통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전제로 해서 동북권 지역을 포함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의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농어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1980년 4월 22일 서울시 방침으로 4대 권역별 농수산 도매시장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1985년 6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동남권)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9년 2월 10일 서울시 도매시장 유통권역 재설정 및 재배치 방안을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1990년 9월 21일 서북권을 서남권으로 흡수시켜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으로 하여 3대 권역별로 건설계획을 확정하였던 바, 동북권은 경기도 구리시에 건설 중에 있으며, 서남권은 강서구 외발산동 일원에 건설입지를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북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동북권, 서남권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병행하여 교통량, 유통인구 등의 검토를 위하여 현재 유통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구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본 건은 농림수산부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나, 서울시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하여도 의견을 들은 후 심사하는 것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敏國 수고맙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잘 들었습니다. 本 件에 대하여 신중한 決定을 위하여 產業經濟局長의 意見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產業經濟局長 金禹爽 產業經濟局長 金禹爽입니다